



김래용(협성대)

1. 서론

많은 학자들은 미가서의 구조를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¹⁾ 첫째, 몇몇 학자들은 미가서를 1-2장, 3-5

1)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해 John T. Willis, "The Structure of Micah 3-5 and the Function of Micah 5:9-14 in the Book",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1 (1969), 191-214; W. Rudolph, *Micha, Nahum, Habakuk, Zephanja*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75), 21-30; David G. Hagstrom, *The Coherence of the Book of Micah: A Literary Analysis* (Atlanta: Scholars Press, 1988), 11-22; Kenneth H. Cuffey, "Remnant, Redactor, and Biblical Theologian: A Comparative Study of Coherence in Micah and the Twelve",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ed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85-208; 황건영, "수사학적 구조로 본 미가", 『칼빈논단』 (2005), 321-365; 장성길, "미가서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전망", 『개혁논총』 vol. 20 (2011), 195-221; 박철우, 『요나/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17-118; 송병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143-145 참조.

장, 6-7장의 3개의 단락으로 분류했는데, 그 이유는 각 단락이 "들으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되고 있으며, 각각의 단락들 안에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이 짝을 이루어 나타나기 때문이다(심판 1:2-2:11//구원 2:12-13; 심판 3장//구원 4-5장; 심판 6:1-7:6//구원 7:7-20). 둘째, 어떤 학자들은 미가서를 1-3장, 4-5장, 6장 1절-7장 6절, 7장 7-20절의 4개의 단락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심판-구원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락들이 심판 혹은 구원의 패턴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1-3장은 심판, 4-5장은 구원, 6장 1절-7장 6절은 심판, 7장 7-20절은 구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이들은 특별히 미가 2장 12-13절에 나타나는 구원신탁이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보았다.²⁾ 셋째, 어떤 학자들은 미가서를 1-5장과 6-7장의 2개의 단락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들은 1-5장에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고, 6-7장에 심판과 구원이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가서 안에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³⁾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의 내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히브리어 מִשְׁפָּט(미쉬파트/정의)와 שְׁאֵרִית(쉐에리트/남은 자)라는 것이다. '정의'는 심판신탁의 메시지의 핵심 개념이며,⁴⁾ '남은 자'는 구원신탁의 메시지의 핵심 개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⁵⁾ 다시 말해 '정의의 문제'는 심판신탁의 핵심 내용이며 야웨의 심판의 근본 원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남은 자의 정체성과 그들의 미래'는 구원신탁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2) 미가 2장 12-13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 30 참조.

3) 다른 주장들을 위해 Kenneth H. Cuffey, 앞글, 185-208 참조.

4) Hans Walter Wolff, *Micah*, Gary Stansell (tran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0), 180. 원제는 *Mica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5) Leslie C. Allen,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401-402.

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 미쉬파트와 웨에리트는 미가서 전체 메시지의 두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가서 안에 '정의의 문체'와 '남은 자의 미래'가 순서적으로 3번 되풀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미가서를 1-2장, 3-5장, 6-7장의 3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이 3개의 단락에서 이 두 개념이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 두 개념이 각각의 단락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사

우선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남은 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을 살펴보자. 몇몇 학자들은 미가서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미가서를 분류하였다.

알렌(Leslie C. Allen)은 미가서를 3개의 단락(미 1:2-2:13; 3:1-5:15; 6:1-7:20)으로 나누고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며, 반면에 두 번째 단락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단락의 앞부분(A; 미 3:1-4:5)과 마지막 부분(A'; 미 5:10-15)이 심판과 희망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졌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나머지 중간부분(C; 미 4:6-5:9)은 독특하게도 남은 자의 사상이 시작(B; 미 4:6-8)과 끝 부분(B'; 미 5:7-9)에 의도적으로 놓여 미가서의 핵심부분(미 4:9-5:6)을 양측에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⁶⁾ 왈키(Bruce K. Waltke)는 미가서가 심판신탁으로 시작해서 구원신탁으로 끝나며, 각 심판신탁이 동사 "들으라"(미 1:2; 3:1; 6:1)로 시작하는 점에 착안하여 미가서를 3개의 단락(미 1-2장; 3-5장; 6-7장)으로 나누고, 특별히 구원신탁에 나타나는 4개의 남은 자(미 2:12-13;

4:6-7; 5:6-7; 7:18) 사상을 기초로 하여 미가서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는 각 단락에 죄로 인한 위기가 언급되는데, 이러한 위기 해결에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⁷⁾ 쿠퍼(Kenneth H. Cuffey)는 구원신탁에 나타나는 남은 자에 관한 약속(미 2:12-13; 4:6-7; 5:6-7; 7:18)에 근거하여 미가서를 4개의 단락(미 1:2-2:13; 3:1-4:8; 4:9-5:14; 6:1-7:20)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단락들 안에 심판-구원의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4개의 남은 자에 관한 약속이 독자로 하여금 미가서에 흐르는 사상의 흐름과 발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보았다.⁸⁾

위의 학자들과는 달리 몇몇 학자들은 자신들의 소논문을 통해 미가서에서 정의와 남은 자의 개념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로(Alison Lo)는 "아모스, 미가, 스바냐에 나타난 남은 자의 연구"를 통해 미가서에서 남은 자는 약자와 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강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변형될 존재로 묘사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모스와 스바냐와는 달리 미가는 남은 자의 영적인 질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아웨가 원하는 것(정의, 인애, 주와 함께 하기)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남은 자들이 부응하기를 드러낸다고 보았다.⁹⁾ 피콕(Kevin C. Peacock)은 "누가 너와 같은 하나님인가? 미가의 신학적 주제들"이라는 논문에서 정의가 지도자들의 평가 기준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가서에서 남은 자들은 구속받기 전에 고난을 당할 존재임을 강조

6) 윗글, 257-261, 352.

7) Bruce K. Waltke, "Micah", Thomas Edward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Micah, Nahum, and Habakkuk* Vol. 2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3), 594-595.
8) Kenneth H. Cuffey, 윗글, 190-192.
9) Alison Lo, "Remnant Motif in Amos, Micah and Zephaniah", J. G. McConville (ed.), *A God of Faithfulness* (New York: T & T Clark, 2011), 130-148.

한다고 보았다.¹⁰⁾

미가 주석서를 출판한 학자들은 미가서의 각 절과 단락을 주석하면서 정의와 남은 자 개념을 본문의 문맥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독특한 주장을 하는 몇몇 학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볼프(H. W. Wolff)는 미가서에서 남은 자는 멸망에서 살아남아 탄식하는 그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족의 설립자들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은 자는 약속의 수령자로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묘사하는 하나의 타이틀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의는 미가의 선포에 있어서 핵심 주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정의는 삶의 모든 장소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정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¹⁾ 메이스(James L. Mays)는 미가서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의해 창조된 자로서 아웨가 이스라엘과 함께한 아웨의 종말론적 목적을 위한 이름이 되며, 그들은 세상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이며 정복할 수 없는 실체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의는 법정에서 재판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과 관련되어 강조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법정에서 정의의 실패로 인해 미가는 정의를 강조한다고 보았다.¹²⁾ 알렌은 미가 2장 12절에 나타나는 남은 자는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감소하고 남은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의는 사회적 의무를 요약하기 위해 예언자들에 의해 매우 종종 사용되어지는 핵심 단어로 그것은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왈키는 남은 자를 두 개의 관점에서 본다. 먼저 회복의 관점에서 남은 자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고, 파괴의 관점에서 남은 자는 소수

10) Kevin C. Peacock, "Who is a God Like You? Theological Themes in Micah",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6 (2003), 27-47.

11) Hans Walter Wolff, *읽기*, 1-234 참조.

12) James L. Mays, *Micah* (London: SCM Press Ltd., 1976), 1-169 참조.

13) Leslie C. Allen, *읽기*, 302, 330.

의 생존자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의 의미는 미가 4장 7절, 5장 7-8절, 7장 18절에 나타나고, 후자의 의미는 2장 12절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미쉬파트의 어원인 špt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와 재판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판관은 억압자들을 처벌하고 비난하며 피억압자에게 보상하는 직분을 지닌다고 보았다.¹⁴⁾

이들과는 달리 알파로(Juan I. Alfaro)는 그의 미가 주석서에 정의와 충성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미가서에서 이 두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은 남은 자들과 동일시되고(미 2:12),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행위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에 의해 축복된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의 전도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회적이며 의식적인 종교적 의무들에 대한 단순한 순종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⁵⁾

이처럼 정의와 남은 자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대부분 별개로 진행되었으며, 미가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시도는 부족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의의 문제와 남은 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미가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4) Bruce K. Waltke, *A Commentary on Mica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1-466 참조.

15) Juan I. Alfaro, *Micah: Justice and Loyalt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1-83 참조.

16) 최근에 김창대는 미가 주석서에서 이 두 개념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다. 김창대, 「미가서 주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서울: 그리스, 2012), 217-229 참조.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연구를 위해서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5집 (1999), 56-73 참조. 허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를 위해서 김래용 「허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구약논단』 48집 (2013), 99-125 참조.

3.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

1) 첫 번째 단락에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미 1-2장)

첫 번째 단락은 명확하게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을 언급한다. 먼저 미가 1장 1절-2장 11절은 심판신탁을 언급하고 미가 2장 12-13절은 구원신탁을 언급하는데, 심판신탁은 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구원신탁은 남은 자의 미래에 대해 다룬다. 이 두 개념은 이 단락 안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단락의 메시지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1) 미쉬파트의 부재(미 2:1-11)

특히 미가 2장 1-11절은 정의의 부재에 집중하는데,¹⁷⁾ 특별히 ‘힘이 있는 자들’(שֵׁלֵאל יָדָם)의 약탈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들의 죄악은 미가 2장 1-2절에 자세하게 묘사된다.

1. הוּי חֲשִׁבֵי־אֶן וּפְעָלֵי רָע עַל־מִשְׁכַּבְּוֹתָם בְּאוּר הַבֶּקֶר יַעֲשׂוּהָ כִּי יִשְׁלֵאל יָדָם
2. וְחֲמָרוּ שְׂרוֹת וְנָגְלוּ וּבָתִּים וְנִשְׂאוּ וְעִשְׂקוּ נָבֶר וּבֵיתוֹ וְאִישׁ וְנַחֲלָתוֹ

1절은 힘이 있는 자들의 내적인 결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3개의 동사를 통해 강조된다.¹⁸⁾ 힘이 있는 자들은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חֲשַׁב), 악을 꾸미고(בָּעַל), 날이 밝으면 그들이 계획한 것을 행하는(עָשָׂה) 자들로 묘사된다. 특별히 “그들의 침상에서”(עַל־מִשְׁכַּבְּוֹתָם)라는 말이 언급되는데,

17) 림버그(James Limburg)는 미가 2장 1-2절과 8-9절에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정의를 행하는데 실패한 사례들로 보았다. *Hosea-Mic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192. 참조. 볼프(Hans Walter Wolff, 윗글, 78)는 미가 2장 2절은 1b절의 “부정의와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보았다.

18)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Micah·Nahum·Habakkuk·Zephaniah*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63.

이것은 그들의 악행이 일시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¹⁹⁾

2절은 힘이 있는 자들의 외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꾸민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먼저 2a절은 3개의 동사를 통해 그들이 약탈자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발들을 탐하여(חָמְרוּ) 빼앗고(גָּזְלוּ), 집들을 취하였다(שָׂאוּ)’. 이 구문에서 “탐하다”라는 동사가 없어도 내용에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동사는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 21:17; 참조 신 5:21)에 나타난다. 이러한 관련성을 통해 볼 때는 “탐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가가 약탈자들의 밤중의 도발을 신의 법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러한 탐닉이 미가의 적대자들이 범죄적 행위를 하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보았다.²⁰⁾

2b절은 ‘억압하다’(עָשָׂה)는 동사를 통해 힘이 있는 자들이 억압자임을 강조한다. 힘이 있는 자들은 נָבֶר(게베르/남자)와 בֵּיתוֹ(베이트/그의 집)과 שֵׁאִ(이쉬/남자)와 נַחֲלָתוֹ(나하라토/그의 산업)를 억압한다. 여기에서 ‘게베르’는 군사적 임무가 가능한 남자이며, ‘이쉬’는 충분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남자이고, ‘바이트’는 가족을 의미하며, ‘나하라’는 물려받은 유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²¹⁾ 이 물려받은 유업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레 25:10-13, 23, 34), 힘이 있는 자들은 철저한 계획 아래 이러한 유업까지도 강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2절에 사용된 7개의 동사와 2b절에 언급된 4개의 억압의 대상들은 이 당시 힘이 있는 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악행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며, 지속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9) Hans Walter Wolff, 윗글, 77.

20) 윗글, 78.

21) 윗글, 78.

특히 여기에서 힘 있는 자들은 약탈자와 억압자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정의의 부재의 전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²²⁾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미가 2장 8-9절에서 다양한 예로 보충 설명된다.

8. וְאַתְמוּל עָמִי לְאוֹיֵב יְקוּמוּם מִמּוֹל שְׁלֹמָה אֲדָר תִּפְשְׁטוּן מִעֲבָרִים בָּטַח שׁוֹבֵי מִלְחָמָה
9. נָשִׂי עָמִי תִּנְרָשׁוּן מִבֵּית תַּעֲנִינָה מֵעַל עֲלֵיָהּ תִּקְחוּ תְּרִי לְעוֹלָם

여기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특별히 ‘원수’(אוֹיֵב)로 묘사된다. 이것은 이 당시 힘 있는 자들의 약탈과 억압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들의 약탈과 억압은 3종류의 약자들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첫째, 약탈의 대상은 전쟁을 피하여 ‘지나가는 자들’(עֲבָרִים)이다. 전쟁과 관련된 것을 볼 때 이들은 집을 떠난 피난민/나그네로 볼 수 있다.²³⁾ 힘 있는 자들은 이들의 옷을 강탈하였다. 만약 이들이 집을 떠난 피난민이라면 이들은 약자 중의 약자인 것이다. 바커(Kenneth L. Barker)는 이들에 대한 약탈은 출애굽기 22장 26-27절의 언약법전과 신명기 24장 10-13절의 신명기 법전의 규정을 깨는 것으로 보았다.²⁴⁾ 한마디로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자들의 옷까지 강탈한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평안을 원하는 자들인 약자들과 평안을 깨는 강자들을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약탈의 대상은 여자들이다. 학자들은 이 여자들이 과부일 것으로 본다.²⁵⁾ 이 여자들은 그녀들이 살고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빼앗기

22) James Limburg, *원글*, 298.
23) 알파로(Juan I. Alfaro, *원글*, 30)는 ‘지나가는 자들’이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인해 북으로부터 피해온 피난민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미스(Ralph L. Smith)는 이들을 여행자로 본다. *Micah-Malachi*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27. 참조.
24)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원글*, 67.
25) Juan I. Alfaro, 30;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원글*, 67; Ralph L. Smith, *원글*, 27. 스미스(Gary V. Smith)는 이 여자들이 전쟁으로 인해 과부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Hosea, Amos, Mica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1), 469 참조.

고 쫓겨나고 만다. 이 여자들이 과부라면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빼앗긴 것이다. 여기에서는 ‘즐거운 집’이라는 표현은 힘 있는 자들의 부정의와 비정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²⁶⁾ 셋째, 약탈의 대상은 어린 자녀이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과부의 자녀들로 보인다.²⁷⁾ 약탈자들은 아버지 없는 자녀들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여기에서 영광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유산을 언급한다.²⁸⁾ 알파로는 여자들이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감으로 그들의 영광과 위엄을 빼앗기게 된 것으로 본다.²⁹⁾ 특별히 여기에서는 “영원히”라는 말을 통해 약탈자들의 죄가 작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미가 2장은 정의의 부재를 힘 있는 자들의 약탈과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대상이 약자들(과부, 고아, 나그네/지나가는 자)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하며, 그들의 행태가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2) 웨에리트의 미래(미 2:12-13)

미가 2장 12-13절은 학자들에 의해 가장 주목을 받는 단락 중에 하나이다.³⁰⁾ 미가 2장 1-11절까지 심판신약을 통해 정의의 부재를 다룬

26) Hans Walter Wolff, *원글*, 83.
27)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원글*, 67-68.
28) Ralph L. Smith, *원글*, 27. 사이먼슨(Daniel J. Simundson)은 영광은 상속된 유산이며, 그들의 미래라고 본다. “The Book of Micah”, Leander E. Keck et al.,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553 참조.
29) Juan I. Alfaro, *원글*, 30.
30) 특별히 미가 2장 12-13절의 구원신약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의 위치에 놓인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학자들은 이 신약이 주전 722년 북왕국의 멸망, 주전 701년 산헤립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과 그 이후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이 신약이 거짓 예언자들의 허황된 소망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 혹은 이것이 구원신약이 아니라 심판신약의 하나의 예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Gershon Brin, “Micah 2,12-13 A Textual and Ideological Stud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 (1989), 118-124; Jan A. Wagenaar, “From Edom He Went Up...: Some Remarks on the Text and Interpretation of Micah II 12-13”, *Vetus Testamentum* 50 (2000), 531-539; A. S. van

저자는 이제 마지막 12-13절에서 남은 자의 미래에 대해 다룬다. 이 2개의 절은 현재의 위치에 놓여 정의와 남은 자의 관계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12a אֶסְפֹּף אֶעֱקֹב כָּל־דָּבָר אֲקַבֵּץ מִיִּשְׂרָאֵל יַחַד אֲשִׁימְנֵנוּ כְּצֹאן בְּצֹרָה
 12b כְּעֶדְרָה בְּתוֹךְ הַדְּבָרוֹ תְּהִימָנָה מֵאָדָם
 13 עֲלֵה הַפָּרִץ לִפְנֵיהֶם פְּרִצֵּוּ וַיַּעֲבְרוּ שָׁעַר וַיֵּצְאוּ בּוֹ וַיַּעֲבֹר מִלְּכֶם לִפְנֵיהֶם וַיְהוּהוּ בְּרָאשִׁים

이 구원신약은 남은 자의 미래의 안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를 위해 9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첫째, 이 구원신약은 ‘모으다’라는 동사를 통해 남은 자의 안전을 설명하며, 이들의 정체성을 암시한다(12a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אֶסְפֹּף וְעֵקֹב כָּל־דָּבָר אֲקַבֵּץ מִיִּשְׂרָאֵל)라는 표현에서 특별히 ‘모으다’(אָסַף와 קָבַץ)의 1인칭 절대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야웨께서 직접 확실히 모을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³¹⁾ 그러면 왜 이렇게 ‘모으다’는 말이 강조되는가? 앞의 심판신약과 연결하여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앞의 심판신약에서는 흩어 버림을 강조하였다. 약탈과 억압을 통해 남자들, 지나가는 자들,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로부터 집과 밭과 산업과 옷을 빼앗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미 2:1-2, 8-9). 따라서 이어지는 구원신약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으겠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남은 자는 앞에서 언급된 약자와 동일시된다.

der Woude, *Micha* (Nijkerk: Callenbach, 1976), 94-98; William McKane, *The Book of Micah* (Edinburgh: T & T Clark, 1998), 3, 87-94 참조.
 31) 브린(Gershon Brin, 윗글, 121-122)은 이 두 히브리어 동사가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 모두에 쓰이고 있기에 이 단락이 긍정적인 상황을 묘사한다고 보아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 구원신약은 한 처소/울타리(יַחַד אֲשִׁימְנֵנוּ)를 강조한다(12절).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יַחַד אֲשִׁימְנֵנוּ כְּצֹאן בְּצֹרָה כְּעֶדְרָה בְּתוֹךְ הַדְּבָרוֹ)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을 강조한다.³²⁾ 남은 자를 확실히 모아 한 곳에 두겠다는 것이다. 왜 하나의 처소가 강조되고 있는가? 그것은 처소를 잃고 흩어진 다양한 계층의 약자들을 한 곳에 모아 흩어짐을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야웨의 의지 때문인 것이다. 셋째, 이 구원신약은 목자이며 왕이신 야웨의 인도를 강조한다(13절). 야웨를 목자와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남은 자들의 철저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힘 있는 인간도 남은 자를 약탈하고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가 2장은 남은 자가 힘 있는 자들의 정의의 부재로 인해 탈취와 억압을 받는 양과 같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으심과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로 거듭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정의와 남은 자는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 단락에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미 3-5장)

두 번째 단락도 심판신약(미 3장)과 구원신약(미 4-5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만큼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미가 3장의 심판신약에 정의가 3번이나 등장하고 미가 4-5장의 구원신약에는 남은 자가 3번이나 등장함으로써³³⁾ 첫 번째 단락에서처럼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 두 개념은 메시지 전개에 중요한 두 축으로서 역할을 한다.

32) 히브리어 ‘보스라’(בֹּסְרָ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위해 Bruce K. Waltke, 윗글, 133-134 참조.
 33) 미가 5장 3절에 남은 자가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יָחַד(에테르/남은 자)가 사용되고 있다.

(1) 미쉬파트의 부재(미 3장)

미가 3장에 3번이나 나타나는 정의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정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정의는 1-3절에 나타난다.

1 ואמר שמעו־נָא רָאשֵׁי יַעֲקֹב וּקְצִינֵי בַּיִת יִשְׂרָאֵל הֲלוֹא לָכֶם לָדַעַת אֶת־הַמִּשְׁפָּט
2 שְׁנָאֵי טוֹב וְאַהֲבֵי רָעָה נְזֻלֵי עוֹרָם מֵעֲלֵיהֶם וּשְׂאָרָם מֵעַל עֲצוּמוֹתָם
3a וְאֶשֶׁר אָכְלוּ שְׂאֵר עַמּוֹ וְעוֹרָם מֵעֲלֵיהֶם הִפְשִׁיטוּ וְאֶת־עֲצוּמוֹתֵיהֶם פָּצְחוּ
3b וּפְרָשׁוּ כְּאֶשֶׁר בְּסִיר וּכְבֹּשֶׁר בְּתוֹךְ קִלְחַת

여기에서 정의의 부재와 관련된 대상은 “야곱의 우두머리들”(יעקב וראשי)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קציני בית ישראל)이다. 미가 3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이들은 9절에 언급되고 있는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들은 유다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지도자들의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과 문학적 장치가 사용된다. 먼저 1절에서 저자는 수사의문문을 사용하여 지도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강조한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הֲלוֹא לָכֶם לָדַעַת אֶת־הַמִּשְׁפָּט). 이 표현에 또한 ‘다아트’(דעת)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학자들은 이 단어가 정의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실행해야 하는 관대한 헌신까지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³⁴⁾

2-3절은 지도자들의 삶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 언급한다. 2a절에서 이들의 삶의 본성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טוב ואהבי רעה)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으로 이들의 근본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다. 한

34) Hans Walter Wolff, *율글*, 98; Ralph L. Smith, *율글*, 60 참조.

걸음 더 나아가 2b-3절에서 저자는 인체 해부학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그들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강조한다.³⁵⁾ 즉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לול, 2b절; פשט, 3a절),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אכל, 3a절), 뼈를 꺾어(פצח, 3a절) 냄비와 솥에 다지는(פש, 3b절) 은유적 행위를 통해 지도자들의 악행을 강조한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양인 백성을 도살하고 먹는 나쁜 목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가 2장 12-13절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자 왕이신 야웨와 대조를 이룬다.³⁶⁾ 이러한 대조를 통해 지도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5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잘(לול)은 이미 미가 2장에서 힘 있는 자들이 밭과 집을 강탈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었고(미 2:2//3:2), 파샤트(פשט)는 지나가는 자들의 옷을 벗기는 장면에서 사용되었다(미 2:8//3:3).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의 잔인성을 위해 사용된다.

미가 3장 9-11절은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9 שמעו־נָא זאת ראשי בית יעקב וקציני בית ישראל המתעבים משפט ואת כל־הַיִּשְׂרָאֵל יַעֲקֹבוֹד
10 בָּנָה צִיּוֹן בְּדָמִים וִירוּשָׁלַם בְּעוֹלָה
11a רָאשֵׁיהָ בְּשַׁחַד וּשְׁפָטוּ וְכַתְּוִיָּהּ בְּמַחִיר יוֹרוּ וּנְבִיאֶיהָ בְּכֶסֶף וְקִסְמוּ
11b וְעֲלֵי־הָהָרָה יִשְׁעֵנוּ לֵאמֹר הֲלוֹא יְהוָה בְּקִרְבָּנוּ לֹא־תָבוֹא עֲלֵינוּ רָעָה

1절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먼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המתעבים ומשפט ואת כל־הַיִּשְׂרָאֵל יַעֲקֹבוֹד)로

35) 장성길, 「미가서 주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서울: 솔로몬, 2009), 78.

36) Kenneth L. Barker & Waylon Bailey, *율글*, 75.

지칭된다. 여기에 사용된 2개의 동사는 ‘타아브’(תעב)의 피엘형과 ‘아카스’(עקס)의 피엘형인데, 전자는 ‘혐오’나 ‘증오’를 의미하고, 후자는 ‘곧은 것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³⁷⁾ 2개의 독특한 동사를 통해 지도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이후에 미가는 지도자들의 3가지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이며(10절), 뇌물을 위해 거짓 사역을 하는 것이며(11a절), 끝까지 경건한 체 하는 것이다(11b절). 특별히 미가는 이들이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영적 책임자들까지 부패하여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³⁸⁾

정의는 미가 3장 8절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미가가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³⁹⁾

וְאוֹלָם אֲנֹכִי מִלְּאֹתֵי כַח אֶת־רוּחַ יְהוָה וּמִשְׁפָּט וּבְנוּרָה לְהַגִּיד לְעַקֵּב פֶּשְׁעֵי וְלִישְׂרָאֵל הַטָּאֹתָיו

미가는 여기에서 2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로 자신이 야웨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의 직무는 그의 청중들의 허물과 죄를 폭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주안점은 야웨의 영(רוחַ יְהוָה)에 의해 정의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정의가 충만해지면 용기를 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의를 충

37) Hans Walter Wolff, *율글*, 106.

38) 율글, 107-108 참조.

39) Daniel J. Simundson, *율글*, 559.

40) 김창대, *율글*, 61. 야웨의 영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박철우, “예언자들의 체험적 영성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54집 (2014), 246-280; 한동규,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웨의 성전 되심(겔 8-11장)”, 『구약논단』 56집 (2015), 9-37 참조.

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야웨의 영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웨의 영을 떠났기에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미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웨에리트의 미래(미 4:6-7; 5:7-9)

‘남은 자’라는 단어가 미가 4장 6-7절에 1번 나타나고, 미가 5장 7-9절에 2번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과 지위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은유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먼저 미가 4장 6-7절을 살펴보자

6 בַּיּוֹם הַהוּא נִאֶסְ-יְהוָה אֶסְפָּה הַצִּלְעָה וְהַנְּדָחָה אֶקְבֹּה וְאֶשֶׁר הִרְעִיתִי
7 וְשָׁמְתִי אֶת־הַצִּלְעָה לְשֹׂאֲרֵי תְּלִימוֹתַי וְהַנְּהַלְאָה לְגִוֵי עַצְמוֹם וּמִלֶּךְ יְהוָה עָלֵיהֶם בְּהַר צִיּוֹן מַעֲתָה וְעַד־עוֹלָם

이 단락은 먼저 남은 자의 정체성을 언급한다(미 4:6-7a). 야웨는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וְשָׁמְתִי אֶת־הַצִּלְעָה לְשֹׂאֲרֵית)고 말한다.⁴¹⁾ 남은 백성은 ‘발을 저는 자’(הַצִּלְעָה)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을 저는 자는 ‘쫓겨난 자’(וְהַנְּהַלְאָה)와 병립하여 나타나며, 야웨는 ‘그들을 함께 시온 산에서 다스리겠다’(מִלֶּךְ יְהוָה עָלֵיהֶם בְּהַר צִיּוֹן)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남은 자는 ‘발을 저는 자’와 ‘쫓겨난 자’라고 볼 수 있다.⁴²⁾ 그런데 이런 특징을 지닌 두 그룹의 남은 자들은 וְאֶשֶׁר הִרְעִיתִי(“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성격이 보충되고 있다. 왈키는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 ו(바브/그리고)는 강조의 바브로 왜

41) 구약성경에 ‘발을 저는 자’라는 표현은 오직 3번 나타난다(미 4:6, 7; 습 3:19).

42) 김창대, *율글*, 93; 박철우, *율글*, 194.

남은 자들이 다리를 절게 되었으며 흠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보았다.⁴³⁾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들인 것이다. 즉 남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 상처를 입은 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가 3-5장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지도자들의 다양한 폭력과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남은 자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미가 4장 7aβ절에서 아웨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남은 자 그룹을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미가 5장 7-8절에도 남은 자가 강한 사자로 묘사된다. 미가 4장 7b절은 “나 여호와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מִלְּךָ יְהוָה עֲלֵיהֶם בְּהַר צִיּוֹן מִעַתָּה וְעַד-עוֹלָם)고 말한다. 남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그들이 아웨에 의해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정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던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되시는 아웨께서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주님은 시온 산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미가 4장 1-2절에서 시온은 세상의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의 주인공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다. 특별히 ‘영원히’라는 단어가 이것을 암시한다. 일시적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미가 2장은 힘 있는 자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고 강조하였다(9절).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약자들, 즉 남은 자들을 세상의 중심인 시온에서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자의 지위가 환난 당한 자에서 아웨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자로 격상되고 있다.

미가 5장 7-9절[MT 5:6-8]에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난다.

7 וְהָיָה שְׂאֵרֵי יַעֲקֹב בְּקֶרֶב עַמִּים רַבִּים כְּטַל מֵאֵת יְהוָה כְּרִבִּיבִים עַל־עֵשֶׂר
אֲשֶׁר לֹא-יִקְוָה לְאִישׁ וְלֹא יִיחַל לְבָנֵי אֲדָם
8 וְהָיָה שְׂאֵרֵי יַעֲקֹב בְּנוֹיִם בְּקֶרֶב עַמִּים רַבִּים כְּאֲרוּחַ בְּמַתְמוֹת יַעַר כְּכַפְּיֹר
בְּעֶדְרֵי-צֹאן אֲשֶׁר אִם עֵבֶר וְרִמְסֹס וְשֹׁרֶף וְאִין מִצִּיל
9 תִּרְם יָרֵךְ עַל-צִרְיֹן וְכָל-אֲיֹבֵיךָ יִכְרָתוּ

미가 5장 7-9절은 남은 자의 기원, 그리고 남은 자와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 사이에서 그들의 역할을 언급한다. 7절은 남은 자의 기원을 언급한다. 남은 자가 ‘이슬’(טַל)과 ‘단비’(רִבִּיבִים)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슬과 단비가 ‘아웨로부터’(מֵאֵת יְהוָה)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남은 자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같은 약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남은 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남은 자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7절)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남은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악한 지도자들의 능력의 차이를 깨달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7-8절은 야곱의 남은 자들의 세상 속에서 역할이 나타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남은 자가 ‘이슬 같은’(כְּטַל), ‘단비 같은’(כְּרִבִּיבִים) 존재로 묘사된다. 비가 적은 이스라엘에 이슬과 단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비옥함과 풍성함에 대한 약속을 암시하는 것이다.⁴⁴⁾ 둘째로 남은 자는 ‘사자 같은’(כְּאֲרוּיָה) 존재로 묘사된다. 사자는 구약에서 인기 있는 이미지들 중의 하나로, 험악하고 무

43) Bruce K. Waltke, *룻글*, 221; 김창대, *룻글*, 93 참조.

44) Hans Walter Wolff, *룻글*, 156.

서운 힘을 말하는데 사용된다. 한마디로 어떤 민족도 그들에 대항하여 설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이것은 야곱의 남은 자가 “축복의 근원과 불행의 조성자가 되며, 구원의 경로와 징벌의 원인이 되며, 희망과 비극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⁶⁾ 결국 이것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남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자들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앞에 언급된 남은 자 사상과 비교할 때 상당히 발전된 이미지와 모습을 보인다.

3) 세 번째 단락에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미 6-7장)

세 번째 단락은 정의의 부재와 남은 자의 미래에 대한 결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의 두 단락과 비교할 때 짧고 간명하게 이 두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정의와 남은 자 개념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1) 미쉬파트의 중요성(미 6:8)

미가 6장 8절에서 정의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הֲגִיד לְךָ אָדָם מִה־טוֹב וּמִה־יְהוָה דּוֹרֵשׁ מִמֶּךָ כִּי אִם־עֲשׂוֹת מִשְׁפָּט וְאֶהְבֵּת חֶסֶד
וְהִצַּנֵּעַ לִכְתּוֹת עִם־אֱלֹהֶיךָ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דּוֹרֵשׁ מִמֶּךָ)이라는 표현이다. 앞의 두 단락에서 선지자가 아무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외쳐도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은 야웨께서 원하는 것

45) James L. Mays, *윌글*, 123.

46) Alison Lo, *윌글*, 142.

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으며 무시하였다.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직설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가는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טָרַף מִיָּשׁוּר)이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의무를 걸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더 강한 사회 계층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헌신의 노력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⁸⁾ 둘째, ‘인애를 사랑하는 것’(אַהֲבַת חֶסֶד)이다. 이것은 내적인 정신과 관련되는 것으로 “형제와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⁴⁹⁾ 이것은 같은 부족과 지파와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확고하며 충실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⁵⁰⁾ 셋째,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הִצַּנֵּעַ לִכְתּוֹת עִם־אֱלֹהֶיךָ)이다. 이것은 인간 행동과 하나님의 행위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미가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요구하는 선이 이 3가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⁵²⁾ 이 3가지를 통해 ‘정의 부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공홀히 여기는 인애가 있다면 인간은 그 정신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로 계속해서 올바르게 정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⁵³⁾

47) 김창대, *윌글*, 143.

48) Juan I. Alfaro, *윌글*, 69; Daniel J. Simundson, *윌글*, 580 참조.

49) 성주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 6장의 주해와 적용”,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호세아, 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58.

50) Juan I. Alfaro, *윌글*, 69; Hans Walter Wolff, *윌글*, 181; James Limburg, *윌글*, 192 참조.

51) Hans Walter Wolff, 181.

52) 윌글, 182.

53) 성주진, *윌글*, 259; 김창대, *윌글*, 142-149.

(2) 웨에리트의 미래(미 7:18-20)

미가 7장 18-20절은 특별히 남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한다.

18 מִי־אֵל כְּמוֹד נְשֵׂא עוֹן וְעָבַר עַל־פְּשָׁע לְשֹׂאֲרֵי־תְהִלָּתוֹ לֹא־תִחְזֹק לְעַד אָפוּ
כִּי־חָפִץ חֶסֶד הוּא
19 יָשׁוּב יִרְחַמֵּנוּ יִכַּבֵּשׁ עֲוֹנוֹתֵינוּ וְתִשְׁלַיֵךְ בְּמַצְלוֹת יָם כָּל־חַטָּאוֹתֵם
20 תִּתֵּן אֲמַת לְעֶקֶב חֶסֶד לְאַבְרָהָם אֲשֶׁר־נִשְׁבַּעְתָּ לְאַבְתָּיִנוּ מִימֵי קְדָם

이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은 8개의 표현으로 묘사한다. '죄를 용서한다', '허물을 눈감아 주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인애를 기뻐한다', '불쌍히 여긴다',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야곱에게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주신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누구인가? 18절은 '그의 기업 남은 자에게'(לְשֹׂאֲרֵי תְהִלָּתוֹ)라는 표현을 통해 은혜를 받을 자가 남은 자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마지막 단락은 남은 자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18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그의 기업의 남은 자들의 죄(עוֹן)를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פְּשָׁע)을 사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남은 자는 죄인으로 묘사되고 있다.⁵⁵⁾ 미가 2-3장에서 야웨는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으로 강조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웨는 남은 자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주시는 분으로 강조된다. 이것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부재 속에서 철저히 약탈당하고 억압

54) 김창대, *룻*, 208.

55) 미가서에는 죄를 위해 4개의 단어가 사용된다. עָשָׂה(미 1:5[2번], 1:13; 3:8; 6:7; 7:18), חָטָא(미 1:5, 13; 3:8; 6:7, 13; 7:9, 19), עָוָן(미 7:18, 19), וְעָוְלָה(미 3:10).

받았던 남은 자들이 미래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남은 자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미쉬파트)와 남은 자(웨에리트)라는 두 개념은 미가서의 메시지의 두 중심축을 이룬다. 심판신학의 핵심 개념은 정의의 부재이고, 구원신학의 핵심 개념은 남은 자의 미래이다. 3개의 단락에서 정의의 부재가 먼저 언급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남은 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는 구조로 미가서는 구성되어 있다.

미가서의 3개의 단락에서 정의와 남은 자 개념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미가는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힘 있는 자들)의 정의의 부재를 지적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 미가는 정의라는 용어를 3번 반복하며, 앞 단락에서 사용한 단어와 표현을 더 강조하여 지도자들(재판관, 제사장, 선지자)의 정의의 부재를 지적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정의(인애, 하나님과 동행)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의 실행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3단계의 전개를 통해 미가는 자신의 심판신학을 정의가 부재한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다.

남은 자 개념은 더 구체적으로 3개의 단락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남은 자는 야웨에 의해 한 곳에 모여져 왕과 목자이신 야웨의 통치를 받게 될 존재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남은 자는 힘 있는 자들의 억압으로 흩어졌지만 야웨에 의해 모아질 자로서 강조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남은 자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그들은 환난을 받아 다리를 저는 자였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

는 시온의 주인공이 될 존재로 묘사된다. 그리고 세상에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복과 저주의 매개체로 강조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존재로 거듭났기에 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강조된다.

5. 참고문헌

- 김래용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구약논단」 48집 (2013), 99-125.
- 김창대, 「미가서 주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서울: 그리스, 2012).
- 박철우, 「요나/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박철우, “예언자들의 체험적 영성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54집 (2014), 246-280.
- 성주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 6장의 주해와 적용”,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호세아, 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53-263.
- 송병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5집 (1999), 56-73.
- 장성길, 「미가서 주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 (서울: 솔로몬, 2009).
- 장성길, “미가서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전망”, 「개혁논총」 vol. 20 (2011), 195-221.
- 황건영, “수사학적 구조로 본 미가”, 「칼빈논단」 (2005), 321-365.
-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 되심(겔 8-11장)”, 「구약논단」 56집 (2015), 9-37.
- Alfaro, Juan I., *Micah: Justice and Loyalt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 Allen, Leslie C.,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 Barker, Kenneth L. & Waylon Bailey, *Micah·Nahum·Habakkuk·Zephaniah*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Brin, Gershon “Micah 2,12-13 A Textual and Ideological Stud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 (1989), 118-124.
- Cuffey, Kenneth H., “Remnant, Redactor, and Biblical Theologian: A Comparative Study of Coherence in Micah and the Twelve”,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ed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85-208.
- Hagstrom, David G., *The Coherence of the Book of Micah: A Literary Analysis*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Limburg, James, *Hosea-Mic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Lo, Alison, “Remnant Motif in Amos, Micah and Zephaniah”, J. G. McConville (ed.), *A God of Faithfulness* (New York: T & T Clark, 2011), 130-148.
- Mays, James L., *Micah* (London: SCM Press Ltd., 1976).
- McKane, William, *The Book of Micah* (Edinburgh: T & T Clark, 1998).

Peacock, Kevin C., "Who is a God Like You? Theological Themes in Micah",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46 (2003), 27-47.

Rudolph, W., *Micah, Nahum, Habakuk, Zephanja*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75).

Simundson, Daniel J., "The Book of Micah", Leander E. Keck et al.,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533-589.

Smith, Ralph L., *Micah-Malachi*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4).

Smith, Gary V., *Hosea, Amos, Mica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1).

Van der Woude, A. S., *Micah* (Nijkerk: Callenbach, 1976).

Wagenaar, Jan A., "From Edom He Went Up...: Some Remarks on the Text and Interpretation of Micah II 12-13", *Vetus Testamentum* 50 (2000), 531-539.

Waltke, Bruce K., "Micah", Thomas Edward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Micah, Nahum, and Habakkuk* Vol. 2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3), 591-764.

Waltke, Bruce K., *A Commentary on Mica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Willis, John T., "The Structure of Micah 3-5 and the Function of Micah 5:9-14 in the Book",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1 (1969), 191-214.

Wolff, Hans Walter, *Micah*, Gary Stansell (tran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0). 원제는 *Mica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검색어

미가
정의
미쉬파트
남은 자
쉐에리트

Mishpat and *She'erit* in the Book of Micah

Rae-Yong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the remnant,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s of these two concepts in the book of Micah. For this, I divided the book of Micah into three sections on the basis of the Hebrew terms, *mishpat* and *she'erit*, and examined the language, structure, and syntax of each section, including these two terms.

First, the two terms, justice and remnant, are main ideas in the messages of each section in the book of Micah. While justice is a main

idea of the judgment oracles, remnant is a main idea of the salvation oracles in the book of Micah.

Second, the concept of the absence of justice is gradually developed in the three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Micah rebukes people of power who do not maintain justice. In the second section, he rebukes leaders, such as judges, priests, and prophets, who also fails to maintain justice, by using the language and expressions given in the first section. In the third section, Micah concludes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justice with a rhetorical question,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emphasizing doing justice, loving-kindness, and walking with God.

Third, the remnant idea is developed step by step in the three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the Lord promises to the remnant that he will gather them in one place, and he will rule them. Here the remnant are identified with the scattered by those who are in power. In the second section, the remnant are described as the lame who are afflicted by the Lord. In the future, however, they would be the main subjects ruled by the Lord in Zion. In the third section, the remnant would be pardoned by the Lord who is love, although they have many iniquities and transgr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prove useful for a better understanding for those who read and study the book of Micah.

Keywords

Micah
justice

mishpat
remnant
she'erit

- 투고일: 2015년 07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8월 06일